

최상의 선택을 위한 생각 설계법



리더의 책장

박 찬 중 HTM벤처스 대표



스텝백

조셉 L. 바다라코 저음, 박진서 역, 토네이도 출판.

“성찰은 업무와 개인적인 문제에서 더 깊은 이해와 통찰력, 창의력 그리고 더 나은 의사 결정으로 담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윤리 교수인 조지프 L. 바다라코의 저서 ‘스텝백(STEP BACK)’을 소개 한다. 이 책은 저자가 100여 명의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 관리자, CEO들과 일대일 인터뷰로 찾아낸 최상의 선택을 위한 생각 설계법을 소개하고 있다. 창업과 성장, 인수합병(M&A)을 경험하면서 ‘생산성 중심’의 사고방식에 집착했던 필자를 후회하게 만든 책이다

저자는 모자이크 성찰의 네 가지 설계 원칙으로 ▲굿 이너프 정신 ▲때때로 다운시프팅하라 ▲조각가처럼 생각하라 ▲잠시 멈추고 평가하기를 제시했다. 그리고 ‘스텝백’하는 습관의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일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또 저자는 ‘부정적 편향’의 폐해를 데니얼 카너먼의 명저 ‘생각에 관한 생각’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주제와 문제에 대해

본능적으로 빠르고 단호하게 확신한다는 사실이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자주 최초의 입장을 끈덕지게 고수한다는 사실이라고 한다. 처음 입장 고수하는 게 좋은 경우는 그린에서 퍼팅할 때 ‘처음 본 라인이 정확하다(First sight is best sight)’ 정도다.

‘굿 이너프 정신’ 등 성찰의 네 가지 설계원칙 제시 성찰에 관한 적용방법, 명확한 도달 과정 알려줘

예전에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이 그룹 워크숍에 참석한 임원들에게 3분짜리 활동 모래시계를 선물해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다. 박 회장은 “모래가 흘러 내려가는 3분 동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박 회장의 모래시계를 두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스피드 경영을 하라는 의미’라느니 ‘주체를 쫓아가기보다 정해진 시간 안에 의사결정 방식을 찾아

보자는 의미 아닌가’ 등 말이 많았다.

그런데 이 모래시계는 초침시계와 달리 속도 보다는 과정의 합리성을 강조한 의미라는 해석이 많았다. 이 책을 읽으며 ‘한걸음 물러나 생각 하다’라는 스텝 백의 사전적 의미와 함께 박 회장의 모래시계가 떠오르기도 했다.

한다. 다소 진부하지만, 백번 옳은 말이다.

서점의 한 코너를 가보면 평범한 듯 하고 비슷한 자기개발서가 많이 있지만 이 책은 성찰에 관한 현실적 적용 방법과 그에 도달하는 과정을 많은 참고도서와 문헌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해를 돋고 있다.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면, 후회없는 결정에 다가 가고 싶다면, 어쩌면 ‘스텝백’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자는 많은 참고도서와 문헌을 인용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이그나티우스 데 로욜라의 ‘영신 수련’, 미셸 몽테뉴의 ‘수상록’,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등이다. 저자 덕분에 지난 연말에 읽은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을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찬중 HTM 벤처스 회장은 다음 글쓰는 이로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이녹스첨단소재 대표이사 회장)을 추천했다.)



주말은 책과 함께

36년 앞선 부캐의 탄생

“소설을 왜 읽어야 하나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거참, 읽기 싫으면 읽지 마쇼”라고 답하고 싶은 마음이 군뜩 같으나 이 상태로 글을 마칠 순 없기에 이유를 몇 자 적어본다. 첫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폐돈을 벌 수 있다. 둘째,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폴 오스터의 뉴욕 3부작 중 ‘유리의 도시’에서 주리 소설가인 주인공 다니엘 퀸은 사설탐정 맥스 워크라는 제2의 자아를 만들어낸다. 소설엔 “퀸은 자기가 벌거벗은 채로 잘못된 곳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 반면, 워크는 호전적이고 입심 좋고 어느 곳에서건 거리낌이 없었다. 퀸에게는 문제를 일으키는 종류의 일도 워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가득찬 모험을 대수롭지 않게 헤쳐나가서 그의 창조자에게 감명을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저자가 지금보다 36년 앞선 1985년에 부캐(부캐릭터)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다. 눈밝은 독자가 이를 보고 부캐 관련 사업 콘텐츠를 떠올려 ‘싸이월드’,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게더타운’,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



뉴욕3부작

폴 오스터 지음/황보석 옮김/열린책들

랫폼을 만들었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됐을 것이다.

‘사람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된다’는 무슨 말일까. “빨리 전화를 받으려면 밑을 닦지 않고 일어나야 했는데 퀸은 움직이는 게 내키지 않았다. 전화는 그가 마음에 들어 하는 물건이 아니어서 몇 번인가 없앨 생각까지 했었다. 제일 싫은 것은 전화가 부리는 횡포였다. 전화는 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던 일을 중단시킬 뿐 아니라 결국은 그 명령에 굴복하게 하는 힘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소설(유리의 도시)의 한 대목에서 우리는 폰포비아(전화울렁증)족의 심정을 헤아리게 된다. 512쪽. 1만원. /김현정 기자 hjk1@

미처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하미나 지음/동아시아

부끄러운 기록 하나. 한국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딱 한 번을 빼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코로나 이후 국내 20대 여성 자살시도자가 33.5%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보고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 등 기분장애로 진료를 받은 20대 여성은 2016년 4만3749명에서 작년 10만6752명으로 2.44배 늘었다. 젊은 여성들은 왜 우울할까. 책의 저자는 ‘제2형 양극성장애’(조울증)를 진단받은 당사자다. “나는 그냥 미친 인간인 걸까?” 인생을 해석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넘기고 싶지 않았던 저자는 ‘조울증’이라는 진단명으로는 민족할 수 없어 스스로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 가기로 결정한다. 31명의 우울증 여성 당사자들을 인터뷰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질병을 받아들이고 회복해 나가는지를 조명하고, 이를 통해 우울증 연구와 치료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여성 환자들의 주체성을 되살린다.

한국의 능력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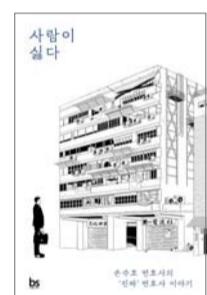
박권일 지음/이데아

능력주의자들은 “개인의 능력 차이는 명백하다. 고로 불평등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스펙이 없는 사람들

이 보상받는 것을 유독 불편해한다.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능력이 많으면 더 많은 뜻을 가지고 능력이 부족하면 더 적은 피리를 돌려받는 게 당연한 걸까. 해당 조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저자는 “현실에서 능력, 노력, 일의 사회적 가치, 경제 성장에 대한 개인의 기여 등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멸시하는 능력주의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별레투성이”고 일갈한다. 월수입이 200만원대면 ‘이백중’, 수시로 대학에 들어가면 ‘수시중’,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로퀴중’… 세상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에 주변에 별레 아닌 자가 없다. 책은 1%도 되지 않는 개천의 용을 향한 질주 때문에 99%의 삶이 폐쇄해지는 한국 사회의 아이라니를 꼬집는다.

사람이 싫다

손수호 지음/브레인스토어



변호사는 뭐하는 사람일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는 변호사의 이미지는 천편일률적이다. 단정한 수트 차림에 각진 서류가방으로 대변된다. 변호사로 일하는 저자는 사람들의 생각만큼 변듯하고 품 나는 인생을 누리고 사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책에 따르면 변호사는 생활인으로서의 무게를 하루하루 감내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감정노동자에 가깝다. 그는 변호사로 사는 동안 ‘아~ 사람이 싫다’고 혼잣말을 내뱉을 만큼 씁쓸한 일이 많았다고 털어놓는다. 주로 문제에 휘말려 어려움에 빠졌거나 직접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데 이들이 주는 스트레스와 압박, 폭언과 욕설, 협박과 앙갚음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싫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계속 보호하고 변호해야 하는 직업인의 슬픔과 기쁨.

288쪽. 1만6000원.



▲ 존슨 英총리 기후변화 문제에 “세계, 술취한 10대처럼 행동”
▲ WSJ “헝다 그룹 파산,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

▲ 미국 주재 중국 대사 “양국 관계 개선… 미국이 먼저 행동해야”
▲ 플로리다도 낙태금지법 도입하나… 주의회에 신규법안 제출



▲ 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추진·지역 억지력 강화 합의
▲ 사우디 국왕, 국제사회의 이란 핵 보유 방지 노력 지지

버스티비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